

'壓力의 吊合原理'

— 파스칼의 水壓定理 —

液體속의 壓力의 吊合原理를 發見한 것은 프랑스에 태어난 브레즈 파스칼이다. 그는 16세에 圓錐曲線論이란 數學에 관한 論文을 썼으며 이어서 압력의 吊合論을 펴냈는데 이 理論이 파스칼의 定理로서 水壓機등의 原理가 된 것이다.

파스칼의 名言 가운데에는 「人間은 말할 나위 없이 가냘픈 한그루의 칼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것은 생각하는 칼대다」라고 한말이 있다.

12世紀初에 프랑스에 태어난 파스칼은 10살때에 이미 音響學을 발견하는 새논문을 쓰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39살때에 노이로제에 걸려 1662年 8月 16일에 世上을 하직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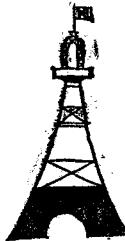
銀杏나무의 精虫發見

— 83年前 日人 平瀬가 —

精虫을 保有하는 植物가운데서 銀杏나무의 정충을 發見한 사람으로는 83年前 日人 平瀬作五郎이 植物學雜誌에 發表함으로써 알려졌다.

한편 소철의 정충도 역시 日本의 池野成一郎이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두가지의 발견에 대하여 한때는 밀지를 않았으나 그후 美國의 웨버등이 立證함으로써 一段落되었다. *



落下傘은 가르네린이 發明

— 佛革命戰叫 脫獄計劃의 副產物 —

空中落下傘은 1797年 10月 22일에 프랑스의 앙드레·샤크·가르네린이 發明하였다.

그는 프랑스 革命中에 抗撫義勇軍에 參加하였다가 捕虜가 되어 형가리의 부디要塞에 幽閉되었다. 가르네린은 獄中에서 脫獄을 궁리하였고 方法으로는 높은 城牆을 뛰어 내리는데 落下速度를 어떻게 弱化시키느냐에 着眼하였다.

構想한 것이 바람을 안고 퍼지는 커다란 우산을 設計하여 이 大傘으로 脱走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革命戰은 끝났고 그는 出獄後에도 계속하여 낙하산을 만들어 實驗하였다.

그가 最初로 만든 낙하산은 直徑 7'의 白布에 32個의 살대를 붙여 꼭 대기는 잡아매고 그 아래 1m가량에 木製 타거를 들르게 했다. 이 같은 낙하산을 氣球에 달아 空中높이 퍼운 다음 그 낙하산으로 뛰어내리게 되는 것으마.

그는 900m의 공중에 낙하산을 단 기구를 띄운 다음 기구와 낙하산을 連結한 끈을 끊었다. 이 때 낙하산이 地上을 向하여 떨어지는 間 낙하산은 큰소리를 내면서 퍼졌고 가르네린은多少의 衝擊은 받았으나 大過없이 지상으로 낙하하는 데 成功하였다. *